

현대 독일 지역지리학의 전개 - 전통과 변화 -

안 영 진*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Regional Geography in Germany since 1945: Traditions and Changes

Young-Jin Ahn*

요약: 이 글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지역지리학의 전개과정과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후 독일 지역지리학은 영미와 다른 위기와 재흥과정을 거치면서 전통의 지속과 새로운 변화를 겪어 왔다. 독일의 지역지리학은 1950, 60년대를 거치면서 전래의 방법론을 고수하면서 지리학 내외의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1960년대 말 이래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따라서 1970, 80년대에 지역지리학은 다양한 발전 방향과 방법론을 모색하면서 새로운 연구 개념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곧 지지의 실용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과학적으로 조직화된 정보를 수신자 위주로 제공하는 지리학 분야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 이래 통독과 함께 '지지연구소'가 설립되면서 지역지리학의 학문적 위상과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금 대두하고 있으며, 그 전도는 여전히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요어: 독일, 지역지리학, 연구 동향, 이론적 쟁점

Abstrac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development of regional geography (including regional studies) in Germany since 1945 in the context of its traditions and changes. From 1945 to the end of 1960s, in spite of many tries of renovation regional geography has faced critics and fall into a serious crisis. After the 1970s many geographers intensively have searched for the new conception and broadly accepting methodological way of regional geography, and in the advent of 1980s regional geography is regarded as a special form of collecting and presenting spatial informations in terms of the addressee. But in the after-era of german unification and through the new establishment of the Institut for the Regional Geography in Leipzig, a discussion on the research aim and future of the regional geography was resumed, and its future direction is open.

Key Words: Germany, regional geography, research progress, theoretical issue

1. 서론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흔히 '지지'(地誌)로 일컬어지는 지역지리학은 지리학 연구와 방법론에서 최종 목표로 인식되었다. 19세기 말 지리학이 대학에 자리 잡고 인접 학문과 경쟁하며 학문적 정체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지지는 지리학의 핵심 패러다임의 하나로 정립되었다. 이러한 발전에서 서구 지리학계 가운데서도 독일 지리학계의 노력이 두드러졌으며, 특히 프랑스의 비달 드 라블라슈(Vidal de la Blache)의 지역연구에 비견되는 헤트너(Hettner)와 라우텐자흐(Lautensach) 등의 지지적 지향은 전통 지리학의 토대를 형성하며 하트손(Hartshorne) 등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다.

20세기 초 독일에서는 헤트너가 자연지리학에

지나치게 경도된 지리학을 바로잡기 위해 지지를 지리학의 권좌에 올려놓았다. 그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답습되고 있는 '지지 도식'(Laenderkundliches Schema)을 통해 지지 서술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이미 1920년대에 이러한 헤트너류의 지지를 도식주의에 입각한 정태적 방법론이라고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서 '동태적지지'(Dynamische Laenderkunde)를 제시한 슈페트만(Spethmann) 등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지리학계의 폭넓은 공감대를 얻는 데에는 실패했다. 헤트너의 방법론은 당시 지리학계를 주도한 그라트만(Gradmann)과 크레스(Krebs), 슈레퍼(Schrepper), 크라우스(Kraus) 등의 지원에 힘입어 지리학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이 과정에서 지지는 특정 지표 공간을 대상으로 단위지역의 특이성에 초점을 맞추

* 전남대학교 지리학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yjahn@chonnam.ac.kr)

어 개성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지리학'(Landeskunde)의 한계가 인식되면서 유형을 앞세우고 일반 지리학과 마찬가지로 법칙적 접근을 강조하는 '경관학'(Landschaftskunde)을 보완적 방법론으로 수용하면서 그 위상을 계속 유지해 나갔다. 지지는 또한 전래의 기술(Darstellung) 차원에서 점차 벗어나 일반지리학과 비견되는 연구(Forschung) 차원으로 격상되기에 이르렀다(안영진·김상빈, 2004).

하지만 선진 제국의 지리학계의 일반적인 발전 동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독일의 지역지리학과 1950, 60년대를 거치면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과 확연히 다른 시대적 상황(즉, 분업의 심화와 교통·통신기술의 발달, 경제의 국제화를 수반한 지역간 연계의 강화, 지리적 현상들의 자연환경으로부터의 탈피 등)에 놓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영미권과 스칸디나비아권의 논리실증주의를 바탕으로 한 지리학의 새로운 사조가 도입되면서 지역지리학의 사회적 적실성과 방법론적 유용성에서 심대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Bahrenberg, 1996). 결국 독일의 지지는 1970년대를 거치면서 지리학의 중심적 위상을 급속히 상실하고 주변화를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래 인접한 프랑스나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에서 지역지리학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는 동시에 그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이 글은 필자의 줄고 '근대 독일 지역지리학의 성립과 발달과정'(안영진·김상빈, 2004)에 뒤이은 작업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지역지리학의 전개과정과 동향을 학사적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좁게는 지역지리학, 넓게는 지역연구가 학문적 관심을 끌고 선진 외국 중 영어권의 연구동향은 비교적 자세히 소개되고 있지만(안영진, 2002, 2005), 지역지리학의 형성과 발달에 크게 기여한 독일어권의 동향에 대한 이해는 빈약한 실정이다. 더욱이 전후 독일의 지역지리학은 영어권과 다른 위기와 재흥 과정을 거치면서 전통의 지속과 새로운 도전과 변화 속에서 학술적 논의를 지속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현대 독일의 지역지리학의 전개과정과 연구동향을 검토하는 것은 우선 지역지리학의 성격과 위상 변화, 그리고 이를 둘러싼 이론적·방법론

적 논쟁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영어권과 현격히 다른 관점과 내용적 전개과정을 살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또한 우리의 지역지리학 내지 지역연구의 방법론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에도 적잖은 시사점을 던져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 글은 전후 독일어권에서 출판된 각종 학술 논문과 관련 연구서들을 분석하여¹⁾, 지역지리학에 관한 특징적인 논점을 파악하고 설명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2. 전후 지역지리학의 전개와 위기

1) 1950, 60년대의 지역지리학

나치가 국가권력을 획득한 1930년대 초반부터 폐망한 1945년까지 독일의 지리학은 파행을 면치 못했다. 지리학계는 적잖은 기회주의자들에 의해 정치적으로 오염되고 파시즘체제에서 국가팽창과 침략이데올로기에 따른 공간정책 및 군사전략 문제를 위주로 한 현실연구에 경도되면서(Schelhaas and Hoensch, 2002, 27-29), 20세기 초반까지 독일 지리학계가 쌓아올린 학문적 명성은 큰 손상을 입었다. 자연히 전후 독일의 지리학은 제1, 2차 세계대전 사이의 시기, 즉 바이마르공화국 시대의 지리학으로 회귀하거나 이 시대와의 연계리는 특징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지리학 전반에 걸쳐 복고적 경향이 우세하고, 당시의 방법론은 대체로 경관 개념에 입각한 이론들을 폭넓게 수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복고적 경향은 1945년에서 1965년 사이에 발간된 지역연구 모노그래프(regional monograph)를 통해서도 손쉽게 살펴 볼 수 있다. 일부 새로운 연구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독일제국 시대에서 1930년대에 이르는 시기에 수집된 자료에 의거하고 있었다.²⁾ 이와 함께 전전과 달리 전후 지리학 학술잡지에 발표된 지지 관련 논고나 텍스트가 눈에 띄는 정도로 현저히 감소하기 시작했다.³⁾ 주지하다시피 지지 에세이는 독일제국 시대에 급증하여 지리학 잡지의 주요 테마로 자리 잡고 양차 세계대전 사이의 시기에 대량으로 출간되면서 전례 없는 붐을 일으켰으나 전후에 크게 후퇴한 것이다.

이렇듯 1950년대가 지나면서 지지는 부분적으로 뒷전으로 밀려나고 유형론적 접근을 강조하는 경

관학이 부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중반까지 전전의 지리철학적 이해, 즉 지지가 지리학의 최종 목표이자 종착점이라는 논리는 계속 견지되었다. 이러한 논지는 보벡(Bobek)과 슈미튀젠(Schmithuesen)의 지리학 체계에 관한 고찰을 통해 강화되기도 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표면은 각각 독자의 질서원리를 지닌 무생물계·생물계·정신계로 구성되어 있고 이 현상계들이 상호 작용하여 통합된 것이 경관이라고 했다. 즉, 경관은 통일적인 총체적 특성(Totalcharakter)을 가진 구체적 공간단위라는 것이었다. 이들은 지리학이 지리적 요소의 단계적 통합을 통해 연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요소와 요소의 복합체를 파악하는 것이 일반지리학이라면, 고도의 복합체를 지역과 연계하여 유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경관학이며, 최고의 복합체를 논의하는 것이 지지학이라고 지적하며, 지지를 지리학 연구의 정상에 올려놓았다(Stewig, 1979; Bahrenberg, 1996, 44-49).

지가가 최상위의 지리복합체를 다루는 것이므로 지리학의 권좌를 차지한다는 과도하게 절대화된 논리는 지지가 단순히 기술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연구의 차원일 수 있다는 전전의 인식과 연계되면서 확산되었다. 이로부터 한편으로 학문체계에 대한 고찰에서 지지의 위상과 다른 한편으로 실질적으로 수행되는 지지서술 간에는 적잖은 간극과 긴장이 발생했다. 이에 1950년대 라우텐자흐가 ‘지리학적 형태변이론’(Geographische Formelwandel)을 통해 그리고 크라우스가 ‘개별 지지’(Individuelle Laenderkunde)를 통해 시도한 지지의 방법론적 혁신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1960년대에 들어 지지는 위기에 직면하는 동시에 새로운 변화의 필요성을 점차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지지가 당면한 한계와 곤경은 여러 요인으로 설명되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상반되었다. 많은 지리학자들은 지지 연구를 과거보다 훨씬 손쉽게 행할 수 있는 새로운 통계기법 등의 혁신을 반겼지만, 또 한편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자료와 결과적으로 자료의 가공과 결부된 새로운 도전에 불만을 드러냈다. 지리학자들은 독일과 여타 서구 산업국가에서 시작된 그리고 이미 상당히 확장된 연구를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나, 이와 동시에 이로 인하여 점점 더 개관하기 어렵고

전문화된 학제적이고 다국적인 학문세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했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전후에 겪은 구조변동은 지지 연구의 유리한 기회였으나, 지지적 종합을 더 이상 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었다(Wardenga, 2001, 20-21).

2) 전통 지역지리학의 위기

이러한 상황에서 1969년 킬(Kiel)에서 개최된 독일 지리학대회(Geographentag)는 지리학을 포함한 지역지리학의 전개에 새로운 전기가 되었다. 특히 1968년에 출간된 바텔스(Bartels)의 교수자격논문에서 의거하여 당시 대학에서 지리학 전공 학생들이 전통 지지에 대한 비판과 지리학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학계에 강력히 요청했다. 이는 지지를 포함한 전통 지리학의 개혁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아니라 오히려 1945년 이후 지지부진을 면치 못한 개혁의 종착점이었는지도 모른다(Bahrenberg, 1996, 41-43). 게다가 이러한 사태는 1930년대에 개발된, 사회변동과 구조에 대한 지리학적 해답이 구세대의 지리학자들에 대한 지나친 외경 속에서 그리고 전후 아데나워(Adenauer) 시대를 특징짓는 새로운 실험과 개혁에 대한 공포감으로 인하여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역사발전의 필연적 귀결이었다고 평가된다.

1960년대 말을 전후하여 독일에서 전통 지리학, 곧 지지에 대한 비판은 자연히 다른 나라보다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당시의 비판들은 대략 네 가지 정도로 정리된다(Wood, 1996). 첫째로 지지는 다양한 지리적 사상을 단순히 수집하고 개별 지역의 특성을 개성 기술적 방식으로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과학적이라는 비판이 대두했다. 학문의 과제는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증적이고 내용을 가진 체계적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이론을 구성하는데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는 1960, 70년대에 과학이론을 주도한 논리실증주의와 비판합리론의 대표적 논자들의 주장이었다. 둘째로 지지는 사회적 적실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지는 사회적 실천의 문제를 거의 배제하고 부르주아를 교육하는 상아탑의 학문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19세기 및 20세 초반에 지지는 정치와 교육 분야에서 나름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했으나, 전후

급변한 시대적 상황과 정치사회적 여건, 그리고 1968년의 독일 사회의 변혁 흐름과 전혀 보조를 맞추지 못했다. 셋째로 전통 지지는 어떤 관점에서 더러라도 명백한 또는 적어도 잠재적인 지리결정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리적 사상들은 연계 없이 공간상에 나열하거나 사물과 상황 간의 인과적 또는 기능적 관계를 지역별로 파악하는 것이 지지의 주된 방법론이었다. 따라서 지지는 공간을 통해 대상으로 삼은 자연(또는 환경)과 인간 간의 원리적으로 조화로운 관계를 상정하고 있었다(안영진, 2003, 90-101). 끝으로 지지는 암묵적으로 과거의 가톨릭교회의 교구처럼 협소한 소우주적 세계관에 입각한 규범적 성격을 전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지의 연구 프로그램은 다양한 척도의 공간을 파악하는데 목표를 두고, 또한 이 점에서 세계를 공간적으로 구획된 자연적·사회적 단위의 잘 짜여진 질서 잡힌 모자이크로 보는 관점에서 출발했다. 이러한 관점은 전근대적 농업사회와는 어느 정도 부합할 수 있을지라도 현대 사회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공간적 연계와 공간형성의 갈등 잠재력을 구조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것이었다(Blotevogel, 1996, 12-13).

이미 언급했듯이 전후 독일에서 대학의 지리학자들은 지역 관련 모노그래프를 거의 출간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지리학 잡지에 발표되던 지지 논술도 현저히 후퇴했다. 특정한 지지적 연구와 각종 연구 성과를 종합한 지지서의 대중화 사이에 점점 커지는 간극에도 불구하고 지리학은 여전히 지지가 지리학의 가장 중요한 분야라는 인식에 안주했다. 반면 1920, 30년대에 뿌리를 둔 지리학 체계에 입각한 학문 작업은 더 이상 현실과 조응하지 못하고 많은 모순을 드러냈다. 당시 지지에 대한 대표적 비판론자였던 하르트(Hard, 1973)는 통일적 연구관점의 부재는 물론이고 전통 지지의 내용체계가 세계를 이해하고 인간 환경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더 이상 적절한 양식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각종 매체나 저널리스트의 과학적 저술과 같은 다른 정보원이 지지가 제시하는 지역의 여러 측면을 훨씬 효과적으로 전달한다고 지적했다.

3. 1970, 80년대 지역지리학의 변화와 새로운 방향의 모색

1) 전통과 새로운 변화의 실천적 모색

독일 지리학사에서 '지진'에 비유되는 킬 지리학 대회는 지리교육을 포함한 지리학 전반에 빠르고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1970년대에 들어 우선 학생들이 제기한 비판과 새로운 명제들을 토론하고 지리교육에서는 교과과정을 개편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 밖에도 지리학 용어에서도 예컨대 '종합적 경관' 대신에 '지리체계', '지지' 대신에 '지역지리학'이 빈번히 사용되기 시작했다. 특히 지역지리학 분야에서는 전통의 고수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일종의 전환기적 상황이 발생했다. 한편으로 지지에 쏟아지는 비판 속에서도 지지를 긍정하는 일군의 학자들은 이론적 토론에 나서기보다 오히려 지지서를 부지런히 집필했다.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를 거쳐 80년대 초반까지 많은 출판사에서 기획된 지지총서가 꾸준히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지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십수 년 전만 해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었던 자신감을 상당히 상실하고 있었다. 지지의 서술방식에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동시에 지지가 지향하는 목적에서도 예전의 통일된 목소리가 잦아들고 있었다.

먼저 지지에 대한 파산선고에 가까운 비판이 나온 1960년대 말부터 지지서의 출판은 오히려 증가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학술출판공사(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는 이미 1960년대 중반부터 구상해 온 지지총서인 '과학적 지지'(Wissenschaftliche Laenderkunde)를 살펴보면, 이 총서는 1968년 『튀니지』(Tunesien)가 제1권으로 출간되었다. 이후 『칠레』(Chile, 1970)와 『시리아』(Syrien, 1971)가 완성되고, 『영국』(Grossbritannien), 『스리랑카』(Sri Lanka), 『미국』(USA) 등의 지지서가 잇따라 출간되면서 1980년대 말까지 이미 30여권을 넘어섰다.⁴⁾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1980년대 초까지 출간된 이들 지지서에서 방법론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지리학 내에서 지지의 기능을 새롭게 규정하려는 의지가 함께 엿보인다는 것이다. 예컨대 『칠레』에서는 칠레인들의 생활공간으로서 정치·행정적

경계를 기초로 한 칠레라는 국가의 지지적 개성과 구조를 설명하고, 『스리랑카』에서도 공간과 인간 힘의 연출과 이에 기초한 지지적 범칙성을 파악하고, 또한 공간적 개성이라는 관점에서 지역적·경관 지리적 차별성을 밝힌다는 전통적인 지지의 목적이 제시되었다. 반면, 『영국』을 쓴 예저(Jaeger)는 지지의 목적을 다양한 수용자집단(관광, 학교, 경제, 정치 등)에게 과학적으로 철저히 조직화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수신자 지향적(adressatenorientiert)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필연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내용체계의 문제는 1970년대를 거치면서 자료배열의 패턴으로서 거의 모든 지지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종래의 지지도식을 재평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넓은 의미에서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료배열 방식에도 불구하고 지지서의 강조점은 변했다. 이미 1920년대에 시작된 자연적 요소와 인문적 요소를 동등하게 고찰하는 경향이 행위를 전개하는 인간의 공간 작용적 영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후자가 강조되면서 지역지리학은 문제 지향적이고 현재 지향적으로 구성되어 갔다. 또한 전통 지지의 주요 특성의 하나였던 특정 지역의 자연적·인문적 요소의 총체적 관련성을 파악하고 도출해야 한다는 주장은 뚜렷이 후퇴했다.

이처럼 ‘과학적 지지’ 총서에 반영된 특징적 변화와 일반 지지의 새로운 경향은 1970년대에 출간된 9권의 ‘피셔 지지’(Fischer Laenderkunde)와 1970년 말 이후 클레트(Klett)사에 의해 발간되고 있는 ‘국가 프로파일’(Laenderprofile) 총서에서도 입증된다. 먼저 ‘피셔 지지’는 대륙 또는 아(亞)대륙 단위의 공간에 대한 기술에서 전통적인 항목 체계를 견지하고 있다. 일부는 규모가 큰 공간의 일반적 구조를 설명하고 하위 지역 또는 개별 국가의 특성을 서술하는 방식(제1권 동아시아; 제2권 남부아시아; 제3권 동남아시아·오세아니아; 제4권 북아프리카 및 중동; 제7권 라틴아메리카; 제8권 유럽)을 취하고, 나머지(제5권 아프리카 및 사하라 이남지역; 제6권 북아메리카; 제9권 소비에트연방)는 전체 자료를 개별 지역에 초점을 맞추거나 서론에서 예시된 중심 주제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 총서는 출판사의 구상과 함께 일반 인문지리학적 내용, 즉 인구, 도시, 경제, 사회 지리학적 문제 및

부분적으로 미래 발전문제를 강조하는 학교의 교육과정과 일치한다. 그리고 대학이 아닌 중·고등학교를 수용자 집단으로 삼고 “지리적 구조와 자료, 발전”이라는 부제를 단 클레트사의 ‘국가 프로파일’ 총서는 1977년 이래 1980년대 말까지 총 23권이 발간되었다.⁵⁾ 이는 전통적 지지도식을 보완하거나 이에 얽매이지 않고 인문지리학적 요소를 주된 내용으로 한 서술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서론에 해당하는 책 전체의 문제제기를 다룬 장에 이어 인구, 취락(도시), 경제, 그리고 부분적으로 교통을 다룬 장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한, 두 개의 장에서 연구지역의 미래발전 또는 국제적 관점에서 본 대외관계의 발전방향을 서술하고 있다. 논저의 앞부분에 자연적 요소를 언급한 장이 간혹 있으나 이것은 예외에 속할 정도였다. 대부분이 자연지리학적 사실관계를 경제를 다룬 장이나 자연(자원)의 잠재력과 그 이용과 관련된 하위 절에서 취급하고 있다.

이처럼 1970년대를 거치면서 독일에서는 지지에 대한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그리고 전통적 지지도식을 별로 의식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체제를 가진 지지서가 많이 출간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과학이론에 입각한 지역지리학의 이론적 토대에 대한 깊은 성찰은 진행되지 못했다. 1970년대 말에 이르러 많은 지지서의 서문이나 도입 부분에서 지지의 의미와 목적을 자세히 논의하는 경우가 과거에 비해 드물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전통 지지에 대한 비판 속에서 기존 방법론을 넘어서서 대안적 방향을 모색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했다(Wardenga, 2001).

2) 지지의 방향을 둘러싼 이론 논쟁

1970년대의 실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독일어권의 지역지리학에서 대안적 방법론의 모색은 여전히 현안으로 남아 있었다. 지지에 대한 비판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이론적 근거와 미래 방향을 토론할 필요성은 그만큼 긴요했다. 물론 방법론을 둘러싼 논의에서 전통 지지의 대한 옹호는 과거만큼 완고하거나 집요하지 않았다. 일부 연구자들은 킬 지리학회에서 받은 충격을 오히려 지지를 새로

운 인식론적 토대 위에서 방법론적으로 재구성하고 그 정당성을 확립하는 추동력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지리학의 재인식 또는 새로운 평가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 것은 1980년대 초반 '독일지리중앙위원회'(Zentralausschuss fuer deutsche Landeskunde) 산하에 일단의 지리학자들에 의한 '지역성'과 '지역의식'에 관한 연구 분과를 결성한 것이었다. 이 연구 분과는 당초 지역지리학 연구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기저에는 지난 십수 년간 실험을 거친 논리실증주의에 입각한 공간 분석적 신지리학에 대한 거부감이 부분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으며, 또한 지역 개념의 평가절하를 극복하고 새로운 연구 분야 및 대안적 접근방법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 출범 이후 연구가 체계화되면서 1980년대 중반부터 이와 관련된 일련의 석·박사학위 논문과 연구 논문이 출간되었다. 이들 연구는 원래 의도와 달리 지역지리학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자극하면서, 결국 지역지리학의 복권에 적잖은 역할을 했다(Wirth, 1998, 59-60).

더군다나 1970년대의 지지에 대한 비판적 분위기 속에서 적지 않는 지리학자들은 70년대 말 이후 다소 온건하면서 무엇이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 지지도 기꺼이 개혁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점차 높여갔다. 이에 전통 지지의 정당성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지만, 지지 연구 자체가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성향을 대표하는 비르트(Wirth)는 이미 1970년대 초에 쾰 지리학회에서 지지에 대한 비판은 전통 지지의 개념 규정에 관한 것이지 지지 전체를 비판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전통 지지가 전체성과 본질의 추구를 무시하고 백과사전식의 자료 수집에 의존한 점은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리학에서 지지 연구 자체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비르트는 이전 세대의 많은 지리학자들처럼 지지를 지리학의 본질이자 최고의 목표라고 옹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지지는 이에 흥미를 느끼고 비판적인 대중들에게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지닌 것으로서 실용적이며 지리학의 오랜 학문적 노력에서 성립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비르트는 지지가 엄격한 의미에

서 과학인지 그렇지 않는지는 논외로 하고, 지지 연구를 적어도 넓은 의미에서 학술적 작업⁶⁾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Wirth, 1970, 1978, 1979).

한 걸음 더 나아가 1970년대 후반 이후 점점 짧은 주기로 등장하는 연구 사조들이 넘쳐나는 반면,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채 애매모호한 지역지리학의 개념이 온존하는 상황에서 방법론적 관점에서 지역지리학에 대한 현상학적·해석학적 이해가 제기되었다. 그 대표적 논자인 쉘러(Schoeller)는 국가와 민족, 문화와 사회를 구체적인 삶의 현실 속에서 파악하고 그것을 공간의 독자적 발전조건에 비추어 인식하는 것을 지지의 목표로 삼고 문제 지향적 방법론을 주창했다.⁷⁾ 그는 타 국가와 이민족을 연구자의 일방적인 관점과 문화적 기준을 갖고 접근하는 것을 경계하고, 그 인식과 이해 과정에서 유럽 중심적 시각을 넘어서서 특정 문화의 전형적 정신세계, 가치 및 규범과 결부시켜 이해할 것을 강조했다. 쉘러는 쉐퍼(Schaefer)의 예외주의 비판을 연상시키는 특수성을 강조하는 논리에서 벗어나 학제적 지역연구(Regionalforschung)를 옹호했다. 여기서 지리학자들은 지지가 새로운 방식의 다양한 척도에 입각하여 지구적 행위맥락과 지역적 행위맥락 사이의 긴장의 장에 자리 잡고 있는 갖가지 문제들을 분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제기가 지역연구 속에 배태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때 지지는 개별 요인들을 연구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개별적으로 파악할지라도 기술을 행할 때에는 다시 종합에 이르게 되는 것이며, 이 종합에서 지지는 개별적인 가닥들을 그것을 조건 짓는 다른 가닥과의 연관성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여기서 그는 지지가 일반적인 경향과 규칙적인 과정을 해명하는 것 외에 지지적 선별의 고유성과 국가 및 그 이상의 공간이 지닌 개성에 대한 이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쉘러는 지지를 통한 성찰적인 지구적 사고와 비교문화 연구의 가능성, 그리고 세계이해를 위한 접근 등을 지리학 연구와 교육의 본질이자 요체라고 했다(Schoeller, 1977).

반면 바텔스와 바렌베르크(Bahrenberg), 그리고 하르트(Hard) 등은 쾰 지리학회회의 비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유의성을 상실했다는 비르트

등의 확신과 정반대로, 이를 계기로 지역지리학은 발전의 종착점에 이르렀다고 고찰했다. 특히 지지에 대해 누구보다도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바텔스는 지역지리란 사실을 기술하는 학문연구의 전(前)단계에 지나지 않으며, 대학에서의 지지 연구는 무의미하다고 했다(Bartels, 1981). 즉, 대학의 연구는 지지라는 전통적 요소를 배제해야 하며, 그리고 이론에 의거하여 도출된 논제를 설명하기 위한 경험적 연구가 지역이나 타 국가를 대상으로 한 현지조사를 필요로 한다는 점은 지지 자체(즉, 이러한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지 연구가 정당하다는 주장)보다는 대학에서의 연구에 대한 일반적 언급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쉴러가 제기한 지지의 교육적 의미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했다. 비록 그는 1980년대에 과학적 지지에 대한 재론을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여겼지만, 위에서 언급한 1970년대를 거치면서 축적된 실천적인 지지 연구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그는 '지지의 르네상스'를 말하는 학자들과 달리 변화된 시대 상황을 훨씬 냉정하게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바텔스는 지지서의 출판 붐을 학문 내부의 그리고 학술적 요구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판촉 가능한 정보에 대한 점증하는 요구의 발로로 평가했다. 그는 사회적 맥락에서 수행되는 자료 및 정보의 선별과 확산을 통한 사회적 이해와 평가를 사회 성원을 육성하는데 더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지의 과제로 보았다. 이런 점에서 바텔스에게 지지는 수많은 미세한 지식을 가능한 객관적으로 축적하는 학문이 아니라 학문의 응용으로서 참여적 생활지향(Lebensorientierung)을 목표로 하는 교육적 과제였다.

따라서 바텔스는 대학에서의 연구 외에 교육적 차원의 과제영역으로서 지지를 두 가지 조건에서 인정했다. 첫째, 지리학은 앞으로 지지를 현대적 연구 분야로 정립하려는 노력을 접고, 오히려 이러한 노력에 드는 이른바 '성찰적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한다고 했다. 즉, 이 에너지는 학교의 교과교육을 넘어서서 세계관의 정립이나 한 국가의 민주적 공간형성을 위한 개념 정립과 관련하여 이데올로기 강화적 또는 비판적 도구로서 기능하는 (사회)교육적 임무를 과제로 삼는 지지를 만드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지리학은

지지를 학문분야로서 그 정당성을 마치 정신 분열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지리학이 안으로 는 지지를 대학의 연구로서 별로 가치 없는 것으로 부정하는 한편, 밖으로는 지리학의 사회적 임무를 위임받은 분야로 파악하는 이중적 태도를 일소해야 한다는 것이다(Bartels, 1981).

이렇듯 1980년대 독일어권에서 지역지리학의 개혁을 둘러싼 논의의 초점은 지역지리학에 대한 깊은 인식론적 고찰보다는 사회적 유용성과 필요성을 다시금 평가하는데 맞춰졌다. 또한 지지가 과학 이론적으로 얼마나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있어 논리실증주의나 비판합리주의가 하나의 패러다임인 만큼 다른 패러다임 역시 동일한 권리를 지니며, 이런 의미에서 지지도 과학 이론적으로 정당성을 최소한 지니고 있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이에 따라 지지를 설명하는 입장에서 다양한 분화가 나타났다(Popp, 1983). 첫째, 지지를 일반지리학의 응용분야로서 파악하는 입장이 있었다. 일반적 내용을 특정 지역에 적용하여 고찰하는 것이 지지 연구의 방법이며, 지지는 곧 일반지리학과 이론지리학의 응용분야이자 이론을 검증하는 장이자 가설 제공자라는 것이었다. 이는 지지를 독자적 분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지지는 대학의 연구대상에 속하지 않고 학문의 응용분야에 지나지 않는다는 바텔스의 견해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둘째, 지지를 법칙 정립적 연역법과 특수한 주변조건의 결합으로서 파악하는 입장이 있었다. 이 경우 지지는 개별 사건을 일반 법칙적인 것과 특수한 주변조건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역사학과 상통하며, 이때 관건은 특수한 주변조건을 어떻게 확인하고 설명하는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논리실증주의나 비판합리주의는 바로 이러한 특수한 현상을 설명할 방법론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해석학 등과 같은 또 다른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셋째, 지지는 개인의 생활 세계적 행동상황을 분석하는 것이라는 입장이 있었다. 비판합리주의에 따라 지리적 현상을 설명할 때 설명 변수 밖에 실용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설명되지 않는 큰 부분이 남게 된다고 한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실용적으로 중요하지만, 일반지리학의 지식은 그 자체로 계획에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모델을 변형하여 개별적인 변수를 인식하고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인과적 원리는 인문학에는 적절치 않으므로 개인의 생활세계의 경험에 기초한 행동상황을 합리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지 연구가 긴요하다고 했다 (Pohl, 1996; 森川 洋, 1997, 23).

4. 1990년대 이후 지역지리학의 재흥과 새로운 도전

1) 시대의 변화와 지지의 재흥 배경

킬 지리학대회 이후 십수 년이 지나면서 지역지리학에 대한 비판은 크게 누그러지고 지역지리학의 실용성, 즉 지지에 대한 점증하는 사회적 요구로 지지학의 르네상스라는 흐름이 대두하기 시작했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 본격화된 이러한 흐름은 독일 지리학계 안팎의 상황변화와 무관치 않았다. 우선 이는 현대 사회과학의 위기로 일컬어지는 기본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으며, 포스트모던 사회의 도래와도 결부되어 있었다. 포스트모던 사회에서는 진보에 대해 공통의 척도도 그리고 인식도 갖고 있지 않으며, 발전에 대한 발상 자체도 단선적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향을 갖고 있다. 학문적으로 사회과학을 자연과학적 이상에 의거하여 접근하는 시대가 지나갔을 뿐만 아니라 사회현상을 특정한 역사적 발전조건과 특정한 지역적 구조 하에서 설명하는 시대를 다시 맞이하게 되었다. 또한 정치·경제적으로는 시공간의 수렴과 응축을 바탕으로 한 지구화가 진행되고, 개별 국가의 독자적 의사결정이 한층 더 어려워지고 세계의 변화가 각 지역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지역과 깊은 연계를 맺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의 재흥으로 일컬어지는 지역주의가 다시금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90년대를 거치면서 영미 등의 지리학계와 마찬가지로 독일 지리학계에서도 지리학의 연구대상으로서 지역을 재발견하고 장소와 공간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고, 결국 지역지리학의 '르네상스'를 귀착되는 흥미로운 양상이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복잡한 조건 하에 전개되고 있는데, 이에 관해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적으로 지리학을 공간과학으로 파악하고 의도적 행위의 주체인 인간을 도외시한 채 오로지 공간적 패턴과 현상을 설명하려고 한 1960, 70년대 주류 지리학의 학문이해에 대한 깊은 불만을 하나의 조건으로 들 수 있다. 더군다나 많은 소장 지리학자들이 논리실증주의자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인접 사회과학 분야와 교류하면서 사회이론에 눈을 뜨고 공간을 전적으로 사회적 산물로만 보는 1970년대의 '공간배척자'(Raumexorzist)들의 관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둘째, 지리학의 핵심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공간, 장소 등의 의미에 대한 지리학 밖에서의 활발한 논의도 지역지리학의 회귀 또는 복권에 크게 기여했다. 한편으로 공간이 인접 학문, 특히 사회학과 역사학, 정치학 등으로부터 큰 관심을 끌고, 이는 다시 지리학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다른 한편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의 대두와 함께 인간사에 대한 거대 담론이나 메타이론이 위기에 처하고, 특이하고 특수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생활방식이나 지역문화의 다원성을 용인하는 사회적 담론이 등장하면서 사회·경제·문화 등을 일정 방식으로만 이해해야 한다는 전체적 관점이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일회적이고 개성 기술적인 지역상을 추구해온 지역지리학의 논리가 새롭게 평가받게 되었다(Wood, 1996).

2) 지지연구소의 설립과 지지연구의 방향

이러한 1990년대의 시대적 흐름과 학문적 상황 속에서 독일의 지역지리학은 또 한번의 큰 전환을 맞았다. 그 직접적 계기는 구동독 라이프치히(Leipzig)에 '지지연구소'의 설립과 함께 다시 제기된 시대에 적합한 지지 연구의 방향을 둘러싼 논의였다. 1990년대 초반 통독과 함께 연방정부와 작센주가 공동으로 '지지연구소'를 설립하면서 지역지리학은 독일 지리학계의 현안으로 등장했다. 사실 킬 지리학대회 이후 지역지리학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지지 연구를 과학이론적으로 평가하고 그 학문적 정당성에 새로운 논거를 부여해야 하는 과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남아 있었다.

우선 당시 지역지리학을 둘러싼 이론적 논의는 적어도 네 가지 대립관계로 파악되는 혼란스럽고도

모순적인 상황에서 전개되었다(Blotevogel, 1996, 14-15). 첫째로 동서독 간에 지역지리학에 대한 평가에 커다란 이견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일차적으로 오랫동안 동서독간의 학문적 단절로 인하여 그리고 서로 다른 국제적 연대로 이론 논의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걸어 온 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여기에 구동독의 특수성이 더해졌다. 즉, 지역지리학에 대한 거부 논리가 당과 가까운 지리학 이론가에 의해 세계관적으로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통독 후 지리학은 결국 지역지리학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확산되어 있었다. 둘째, 과학적 모델을 추구하는 학자들의 지역지리학에 대한 폄하와 대량으로 출간된 지지서 간에 부인할 수 없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사실 독일 지리학사상 1980~90년대만큼 많은 지지서가 쓰여진 경우가 없었으며, 이는 어떻게 이해하든 지지서에 대한 폭넓은 시장수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한편으로 영미와 네덜란드, 프랑스에서 전개된 신지역지리학에 대한 활발한 이론논쟁과 다른 한편으로 독일의 침묵이라는 대조적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 물론 이들 나라는 여러 면에서 지역지리학 연구의 후진국으로 여겨졌으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 그 상황은 역전되었다. 또한 독일어권에서는 이미 살펴본 것처럼 수많은 지지서가 출판되었지만 깊이 있는 이론적·개념적 성찰은 부족했다. 넷째, 사회과학적 지리학과 자연과학적 지리학 간의 교류가 현저히 감소했다는 점이다. 자연지리학적 관점에서 쓰여진 지지서와 인문지리학적 관점에서 쓰여진 지지서의 분화가 명확해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인간과 자연의 관계라는 패러다임은 지역지리학 연구의 규범으로서 그 의미를 상실하고 있었다.

그런데 영미와 인접 국가들과 달리 독일에서 지역지리학을 둘러싼 이론적 논의의 결여는 심리적 측면과 무관치 않았다. 다시 말해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에 걸쳐 올바른 과학 이론적 입장과 지리학의 개념구상을 포함한 지역지리학의 학문적 정당성을 둘러싼 '신념의 전쟁'을 치른 후, 이론 문제에 대한 의욕 상실의 학계에 폭넓게 퍼져 있었다. 지지를 둘러싼 본질적 논의는 이미 이뤄졌고, 누구든지 각자 나름의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지역지리학적 전통을 의식적으로 또는 지지에 대한 비판

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부류와 내용상 특화된 연구에 중점을 둔 지역지리학으로부터의 단호한 전환을 주장하는 부류가 존재했다. 더군다나 인간과 자연의 조화라는 지역지리학의 암묵적 패러다임이 유효성을 상실한 뒤, 지역지리학은 지리적 지식의 수집과 가공, 기술로서 이해될 뿐, 하나의 연구과제로서 인식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1992년 1월 독일과 유럽을 연구대상 지역으로 한 '지지연구소'가 설립되었다. 자연히 향후 독일 지역지리학 발전에 전인차가 될 연구소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는 학계 내부로부터 이견이 드러났다. 그것은 곧 당시 독일 지리학계의 '시대에 적합한 지지개념'에 관한 입장차에 다른 아니었다. 숨김없는 찬성에서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거쳐 건설적 불신과 공개적 거부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이 존재했다. 우선 첫 번째 부류는 '확신에 찬 지지론자'(ueberzeugte Laenderkundler)로서 1960년대 말과 70년대에 걸쳐 지지에 대한 폄하와 비판에 깊은 충격을 받은 후 이론 논쟁에는 참여하지 않고 오직 지지서를 집필하는데 몰두해 온 학자들이었다. 이들은 바로 지지연구소의 설립을 계기로 지지적 '역(逆)개혁'을 기대했다. 두 번째 부류는 '과학적 근대화론자'(szientifische Modernisierer)로서 1970년대 지리학의 방법론 논쟁을 통해 범칙 추구적이고 엄정한 방법론에 입각한 지리학만이 올바른 길이라는 결론을 내린 학자들이었다. 이들에게 지지연구소의 설립은 흘러간 지리학을 되돌려 놓으려는 시대착오적 시도에 불과했다. 세 번째 부류는 '비판적 이론가'(kritische Theoretiker)로서 사회 정책적으로 참여 지향적이며 지리학은 비판적 사회과학 또는 환경과학이어야 한다고 믿는 학자들이었다. 이들은 지지연구소를 불신하면서도 그 목표에서는 어떤든 사회 비판적 기능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부류는 '성찰적 회의론자'(reflexive Skeptiker)로 일컬어 질 수 있는데, 십수 년간에 걸친 이론 논쟁을 뒤로한 학자들이었다. 지지연구소의 활동도 적어도 책임 있고 창조적이며, 이론에 입각한 그리고 방법론적으로 통제된 지식과 정보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지지연구소, 즉 지역지리학의 연구방향을 둘러싼 논의는 크게 회의론과 조심스러운 낙관론

이 교차했다. 전자의 입장은 어떤 경우든 전통 지리로 회귀할 수 없다는 것으로, 기술적이고 방법론적 성찰이 없는 지리결정론적 지지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후자의 입장은 새로운 성찰적 차원에 설 때 지역이나 경관, 공간은 결코 사소하거나 지적으로 흥미 없는 주제가 아니라 긴장되는 새로운 연구관점을 요구하는 만큼 지역지리학의 전도가 결코 어둡다고만 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지지연구소에 붙은 ‘지지’라는 이름은 위험과 함께 기회를 담지하고 있었다. 위험이란 곧 지지라는 이름을 단 연구소가 고전적 지지 연구를 답습하거나 거기로 회귀할지도 모른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라면, 기회란 가능한 지리학의 새로운 응용적 패러다임을 개발하는데 잠재력을 지닌 새롭고 시대에 적절한 지역지리학의 연구관점이 모색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Blotvogel, 1996, 18-20).

지리연구소의 설립구상에서 언급된 중기적 연구 과제, 즉 현대적 지역지리학은 사회의 비판적 자기 성찰에 기여해야 하며, 특히 공간의 구조화와 재구조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지지연구소는 이미 초기 단계부터 지지적 ‘역개혁’의 선봉장으로서의 발전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 연구내용도 전통 지지와 달리 일반지리학적 주제에 맞춰졌다. 전통 지지에 해당하는 연구 성과라면, 『독일국가지도집』(Nationalatlas Bundesrepublik Deutschland) 정도를 들 수 있다(김상빈, 2003). 그리고 1997년 말 지지연구소는 조직을 개편하면서 지지를 여러 중점 연구 분야 중 하나로 설정했다. 따라서 창립 시기의 지지 개념과 관련하여 여전히 불명료하게 남아 있던 방법론적 논의가 새로운 연구체계에서는 상대화되었다. 이는 곧 지지연구소가 독자적 연구라는 협의의 지지 개념에서 벗어나 지리학적 연구 성과의 폭넓은 수용자 지향의 대중화라는 목표를 갖고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한 세기 넘게 지역지리학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각인시켜 온 중요한 요소, 즉 연구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론적 기술의 문제로서 지지의 성격이 마침내 실천이라는 구조적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모색되고 있다(Aschauer, 2002).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지리학적 연구 결과의 수용자 지

향의 대중화로 이해할 때, 이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연구가 요청되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⁸⁾ 이 점에 독일 지역지리학의 미래 과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글은 전후 독일어권 지역지리학의 전개과정과 연구동향을 학사적 관점에서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독일의 지리학 동향을 논의하면서 지역지리학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지역지리학의 발달과 그 이론적 쟁점과 방법론적 흐름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경우는 없었다. 이 글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독일 지역지리학의 발전과정에 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전후에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독일 지역지리학의 전개를 살펴보는 동시에 지역지리학의 쇠퇴와 재흥과정에서 부각된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자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만 해도 지역지리학은 독일 지리학의 중심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세계적으로 19세기 중·후반에 걸쳐 대학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학문인 지리학은 학문 공동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사회적으로도 적절한 학리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지역지리학을 통해 그 방향성을 확립할 수 있었다. 특히 독일 지리학계의 노력이 두드러졌고, 지역지리학을 중심으로 한 지리학 사조는 이후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독일에서는 오랫동안 지역지리학이 지리학의 최종 목표로 확고한 위상을 견지했으나, 1960년대를 거치면서 시대에 뒤떨어져 방법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유용성도 상실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1969년 킬에서 개최된 독일 지리학대회를 계기로 지지는 위기를 맞았다. 이 또한 전후 독일 지리학계의 복고적 성향과 함께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상아탑 안에 안주해온 점과 결코 무관치 않았다. 특히 독일에서의 이러한 위기는 전후 전통 지리학으로부터 과감히 벗어나 신지리학을 다양하게 모색해온 영미와 스칸디나비아권 지리학계의 새로운 흐름에 상당히 뒤쳐진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기도 했다. 따라서 지리학을 이론 구성적, 법적 정립적 공간과학으로 규

정하는 새로운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전통 지지는 기껏해야 사실을 기술하는 학문 연구의 전단계 정도로 폄하되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 말부터 이러한 흐름을 극복하고 지역지리학을 새로운 인식론적 토대 위에서 방법론적으로 재구성하고 그 정당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이 등장하면서 지역지리학은 또 한번의 변화를 겪었다. 무엇보다도 그 주된 지향점은 사회적 요구와 필요에 입각한 지역지리학의 재흥을 모색하는데 맞춰졌다. 이렇듯 독일의 지역지리학은 영국이나 프랑스 등 인접 국가와는 다른 독자적 전개양상을 보여주었다. 즉, 이들 국가가 과학 철학적 관점에서 지역지리학의 성격과 미래 방향을 이론적으로 논의하는데 치우쳤다면, 독일에서는 헤트너와 보벡, 슈미튜젠 등의 학자들이 제시한 방법론을 검토하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지역지리학의 사회적 유용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지지는 이론적 연구보다는 실용적·실천적 영역으로서 교육적 가치를 앞세우는 특성을 보였다. 이런 맥락에서 특히 현상학적·해석학적 접근방법을 원용하며 지지는 곧 수용자 지향의 과학적으로 조작화된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명제가 폭넓은 지지를 얻게 되었다. 이와 함께 '지'라는 용어보다는 '지역지리학'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고, 지역화의 방법론과 지역성과 지역주의 등을 둘러싼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생활 세계와 지역 정체성, 공간의 구성과 재구성 등에 대한 연구가 크게 늘어났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 독일 지역지리학은 또 한번의 전기를 맞는데, 그 직접적 계기는 '지연구소'의 설립과 함께 시대에 적실한 새로운 지지 개념에 대한 모색을 통해서였다. 통독과 더불어 지연구소가 설립되면서 연구소의 장래 방향과 관련한 지역지리학의 이해가 학계의 현안으로 다시금 등장했다. 물론 킬 대회 이후 지지를 둘러싼 오랜 논쟁이 학계의 합의된 결론으로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지리학계는 지역지리학을 시대 상황에 알맞게 재평가하고 그 학리적 정당성을 부여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었다. 지역지리학을 둘러싼 논의는 자연히 혼란스러움과 모순적 상황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고, 무엇보다도 지연구소의 재건에 대한 반응은 명시적 찬성에서 조심스

러운 낙관론을 거쳐 건설적 불신과 공개적 거부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였다. 지역지리학의 성격에 대한 오랜 탐색과 논의에도 불구하고 지지연구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그만큼 다양했고 천차만별이었다. 지지의 개념은 과학 이론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었지만, 결코 전통적 의미로 지속될 수 없으며 수용자를 고려한 실천 지향적으로 추구될 수밖에 없다는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 졌다. 하지만 지지연구소의 연구방향과 지역지리학의 미래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여전히 많은 이론적·방법론적 과제가 남아 있음은 분명하며, 따라서 그 전도는 여전히 열려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

註

- 1) 이 글은 일부 논지와 내용에서 블로테포겔(Blotvogel, 1997)과 바르덴가(Wardenga, 2001)의 연구를 적잖게 원용하였음을 밝혀둔다.
- 2) 대표적으로 『그리스경관』(Die griechischen Landschaften, 1950~1959)에 대한 필립손(Philippson)의 저서는 대부분 독일제국 시대로부터 연유한 자료에 바탕을 두었다. 라우텐자흐(Lautensach)의 『이베리아반도』(Iberische Halbinsel, 1964)도 『지리과학 편람서』(Handbuch der Geographischen Wissenschaft, 1931)에 소급된다. 슈미더(Schmieder)의 『신세계』(Die Neue Welt, 1962; 1963), 뢰린하우스(Doerrenhaus)의 『남부 티롤』(Suedtirol, 1959), 벨헬름(Wilhelmy)과 로메더(Rohmeder)의 『라플라타 제국』(La-Plata-Laender) 등도 1930년대에 발표된 출판물에 의존한 것이었다. 다만 뮐러-빌레스(Mueller-Willes)의 『베스트팔렌』(Westfalen, 1952), 멘싱(Mensching)의 『모로코』(Marokko, 1957), 콜프(Kolb)의 『동아시아』(Ostasien, 1963), 시버스(Sievers)의 『실론』(Ceylon, 1964), 카르거(Karger)의 『소련』(Sowjetunion, 1964), 슈미더(Schmieder)의 『구세계』(Alte Welt, 1965) 등이 비교적 새로운 연구로 볼 수 있다(Wardenga, 2001).
- 3) 먼저 트롤(K. Troll)에 의해 1947년에 창간된 「지리학」(Erdkunde)의 경우 첫 10년 동안 지지 에세이가 4편 실렸으나 이후로는 찾아 볼 수 없다. 이와 비슷한 양상은 리터(C. Ritter)의 주도로 창립된 베를린지리협회의 기관지로 오랜 전통을 지닌 「지구」(Erde)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1950년대에 발표된 지지 논문은 3편에 불과하다. 독일 지리학계의 또 다른 대표적 학술지의 하나인 「독일 지지 보고서」(Berichte zur deutschen Landeskunde)의 경우에도 1950년대 이후에는 계통적 연구가 점점 중심을 차지하였다. 1960년대까지 지지 위주의 중·고등학교 학교지리의 중요한 대변지였던 「지리학평론」(Geographische Rundschau)

현대 독일 지역지리학의 전개

- 에 발표된 글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교사들의 교육 및 학습 자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지리 논문이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1966년까지 지리 논문의 비중은 전체 논문의 약 30%에 달함), 이후 지리 논문이 세계 각 지역을 대상으로 한 특집호의 소개 논문으로만 등장하고 있다(Broggiato, 1999).
- 4) 그동안 출판된 국내 지리서를 제외한 해외 지리서를 연도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튀니지(Mensching, 1968), 칠레(Weischet, 1970), 시리아(Wirth, 1971), 앙골라(Kuder, 1971), 라이베리아(Schulze, 1973), 미국(Blume, 1975), 모잠비크(Kuder, 1975), 영국(Jaeger, 1976), 스리랑카(Domroes, 1976), 베네룩스(Hambloch, 1977), 노르웨이(Glaesser, 1978), 마다가스카르(Sick, 1979), 자이레(Wiese, 1980), 남아프리카공화국(Klein 등, 1980), 이란(Ehlers, 1980), 포르투갈(Weber, 1980), 말라위(Lienau, 1981), 터키(Huetteroth, 1982), 이스라엘(Karmon, 1983), 잠비아(Schultz, 1983), 이탈리아(Tichy, 1985), 말리(Barth, 1986), 스위스(Wiesli, 1986), 가나(Nielinski, 1986), 아이슬란드(Glaesser 등, 1986), 바이에른(Ruppert, 1987), 아이보리코스트(Wiese, 1988), 캐나다(Lenz, 1988), 태국(Donner, 1989), 그리스(Lienau, 1989), 동아프리카(Hecklau, 1989), 아일랜드(Jaeger, 1990), 프랑스(Maier 등, 1990), 아프가니스탄(Groetbach, 1990), 폴란드(Pelzer, 1991), 태평양 제도(Kreisel, 1991), 나미비아/보츠와나(Klimm 외, 1993), 멕시코(Sommerhoff 외, 1999), 이탈리아(Rother, 2000), 지중해(Wagner, 2001), 인도(Stang, 2002), 오스트리아(Lichtenberger, 2002), 북유럽(Glaesser 외, 2003), 미국(Schneider-Sliwa, 2005), 이집트(Ibrahim, 2005) 등이다.
- 5) 현재는 페르테스 국가프로필(Perthes Laenderprofile)로 개칭되었다. 그동안 출판된 국가 단위 지리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서독(Fuchs, 1977), 프랑스(Pletsch, 1978), 칠레(Baehr, 1979), 튀니지(Frankenber, 1979), 포르투갈(Freud, 1979), 인도네시아(Roell, 1979), 말레이시아(Kuehne, 1980), 덴마크(Glaesser, 1980), 유고슬라비아(Bueschenfeld, 1981), 동독(Eckart, 1980), 미국(Hahn, 1980), 스페인(Breuer, 1982), 나미비아(Leser, 1982), 영국(Heineberg, 1983), 브라질(Mueller, 1984), 아프가니스탄(Wiebe, 1984), 오스트레일리아(Lamping, 1984), 걸프연안소국들(Scholz, 1984), 노르웨이(Lindemann, 1986), 중국(Boehn, 1987), 폴란드(Kapala, 1988), 페루(Mikus, 1988), 모로코(Popp 등, 1990), 케냐(Vorlauffer, 1990), 아르헨티나(Buenstorf, 1992), 캐나다(Vogelsang, 1993), 가나(Schmidt-Kallert, 1994), 탄자니아(Engelhard, 1994), 알제리(Arnold, 1995), 멕시코(Gormsen, 1995), 세네갈(Wiese, 1995), 터키(Hoehfeld, 1995), 인도(Bronger, 1996), 서사모아(Hennings, 1996), 잠비아(Drescher, 1998), 사우디아라비아(Barth 외, 1998), 남아프리카공화국(Wiese, 1999), 오스트리아(Juelg, 2001), 핀란드(Militz, 2002), 남아프리카(Baehr, 2002), 그리스(Haversath, 2004), 사하라(Hammer, 2004) 등이다. 끝으로 본 총서가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그 포맷과 내용 구성이 다소 변

하였음을 아울러 지적해 둔다.

- 6) 비르트는 그 이유를 지지가 자료를 관찰과 설문 및 출처 조사 등을 통해 수집·정리하고, 마침내 서술에서는 관찰 대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그에 대한 균형 잡힌 평가, 그리고 대상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갖가지 방법론을 완벽하게 구사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Wirth, 1970).
- 7) 동태적 지지를 발전시킨 것으로, 문제 지향적 지지(problemorientierte Laenderkunde)는 성공적인 예가 1973년에 발표된 잔트너(G. Sandner)와 슈테거(H.-A. Steger)의 라틴아메리카 지지이다. 문제 지향적 방법론은 개별 문제 또는 문제 영역이 지지기술의 중심에 자리 잡으며, 지지 도식에 맨 먼저 다루어진 자연환경이 부분적으로 텍스트의 후반부에 서술되기도 한다. 문제 지향적 지지는 어떤 지표 공간의 지역적 상호 관련성과 현실 문제를 이해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 8) 이는 대중화의 메커니즘 자체와 수용자의 성격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文獻

- 김상빈, 2003, 동독지역의 지역지리 최근 연구동향 - 라이프찌히 지역지리연구소의 연구활동을 중심으로, *지리학연구*, 37(2), 91-105.
- 안영진, 2002, 우리나라 지역지리학의 연구 추세와 전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8(2), 184-198.
- 안영진(윤킴), 2003, 사회공간론 - 사회지리학이론 발달사, 서울, 한울(Werlen, B., 2000, *Sozialgeographie - Eine Einfuehrung*, Haupt).
- 안영진, 2005, 국토연구를 위한 지지편찬의 기본 방향과 내용 체계 구상, *지리학논총*, 45, 259-276.
- 안영진·김상빈, 2004, 근대 독일 지역지리학의 성립과 발달과정,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0(3), 554-567.
- 森川 洋, 1997, ドイツにおける地誌學の研究動向, 廣島大學 地誌研年報, 6, 15-50.
- Aschauer, W., 2002, Zwischen Theorie und Praxis - Anmerkungen zur Kozeption von Landeskunde, *Berichte zur deutschen Landeskunde*, 76(4), 253-271.
- Bahrenberg, G., 1996, Die Laenderkunde im Paradigmenstreit um 1970, *Berichte zur Deutschen Landeskunde*, 70(1), 41-54.
- Bartels, D., 1981, Laenderkunde und Hochschulforschung, in Baehr, J. and Stewig, R. (eds.),

- Beitraege zur Theorie und Methode der Laenderkunde*(= *Kieler Geographische Schriften*, 52), 43-49.
- Blotevogel, H. H., 1997, Aufgaben und Probleme der Regional Geographie Heute - Ueberlegungen zur Theorie der Landes- und Laenderkunde anlaesslich des Gruendungskonzepts des Instituts fuer Laenderkunde Leipzig, *Berichte zur deutschen Landeskunde*, 70(1), 11-40.
- Brogiate, H. P., 1999, Die Geographische Rundschau 1949~1998 - eine Erfolgsgeschichte, *Geographische Rundschau*, 51, 4-11.
- Hard, G., 1973, *Die Geographie - Eine wissenschaftstheoretische Einfuehrung*, Berlin.
- Pohl, J., 1996, Ansaetze zu einer Hermeneutischen Begrueudung der Regionalen Geographie - Landes- und Laenderkunde als Erforschung regionaler Lebenspraxis? *Berichte zur deutschen Landeskunde*, 70(1), 73-92.
- Popp, H., 1983, Geographische Landeskunde - Was heisst das eigentlich? *Berichte zur deutschen Landeskunde*, 70, 73-92.
- Schelhaas, B. and Hoensch, I., 2001, History of German Geography - Worldwide Reputation and Strategies of Nationalisation and Institutionalisation, in Dunbar, G. A. (ed.), *Geography: Discipline, Profession and Subject since 1870*, Kluwer Academic Publishers, 9-44.
- Stewig, R., 1979, *Probleme der Laenderkunde*,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 Wardenga, U., 2001, Theorie und Praxis der laenderkundlichen Forschung und Darstellung in Deutschland, in Grimm, F.-D. und Wardenga, U. (eds.), *Zur Entwicklung des laenderkundlichen Ansatzes* (= *Beitraege zur Regional Geographie*, 53), 78-84.
- Wardenga, U., 2003, Vor 75 Jahren erschienen: Hans Spethmanns 'Dynamische Laenderkunde', *Petermanns Geographische Mitteilungen*, 147 (4), 92-93.
- Werlen, B., 1997, *Sozialgeographie alltaeglicher Regionalisierungen Band 2 - Globalisierung, Region und Regionalisierung*, Franz Steiner Verlag.
- Wirth, E., 1970, Zwoelf Thesen zur aktuellen Problematik der Laenderkunde, *Geographische Rundschau*, 22, 444-450.
- Wirth, E., 1978, Zur wissenschaftstheoretischen Problematik der Laenderkunde, *Geographische Zeitschrift* 66, 241-261.
- Wirth, E., 1979, *Theoretische Geographie*, Teubner.
- Wirth, E., 1998, Handlungstheorie als Koenigsweg einer modernen Regionalen Geographie? - Was 30 Jahre Diskussion um die Laenderkunde gebracht haben, *Geographische Rundschau*, 51(1), 57-64.
- Wolf, K., 1994, Der gesellschaftliche Auftrag der geographischen Landeskunde, *Berichte zur deutschen Landeskunde*, 68(2), 361-367.
- Wood, G., 1996, Regionale Geographie im Umbruch? - Ansaetze einer sozialwissenschaftlichen New Regional Geography im angelsaechsischen Sprachraum, *Berichte zur deutschen Landeskunde*, 70(1), 55-72.

(접수 : 2006. 2. 27, 채택 : 2006. 4. 4)